

201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모의고사 정답 및 해설

윤리와 사상

• 1회 •

정답

1	⑤	2	②	3	⑤	4	③	5	①
6	①	7	⑤	8	④	9	③	10	④
11	③	12	②	13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9	⑤	20	⑤

해설

1. [출제의도] 노자의 소국과민과 공자의 대동 사회 비교 이해

같은 노자, 을은 공자이다. 노자의 소국과민은 무위의 정치를 따를 것을 강조하고, 공자의 대동 사회는 통치자가 인의(仁義)의 도덕으로 다스릴 것(德治)을 주장한다. 또한 공자는 도덕과 예의가 주된 사회 규범이 되려면, 백성들이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통치자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ㄱ. 노자는 유교에서 강조하는 예(禮)가 인간의 자연스러운 본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였다.

ㄴ. 공자는 올바른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내면적 도덕성인 인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2. [출제의도] 벤담과 칸트의 사상 비교 이해

같은 벤담, 을은 칸트이다. 벤담은 목적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양적 공리주의 사상가로 유용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가급적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이익이나 쾌락을 가져다주는 행위를 도덕적 행위로 본다. 반면 칸트는 의무론적 윤리를 대표하는 사상가로 인간은 도덕 법칙을 세우고 따르는 자유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도덕 법칙은 그 자체가 목적인 정언 명령이어야 한다고 본다.

②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본 사상가는 질적 공리주의자 밀이다.

3. [출제의도] 맹자의 사상 이해

같은 맹자이다. 맹자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인(仁)과 의(義)에 기반을 둔 왕도 정치를 추구하였다. 또한 맹자는 인의를 해치는 군주의 교체는 정당한 일이라고 보아 민본주의적 역성혁명 사상을 제시하였다.

ㄱ. 성 자체를 선악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은 고자의 주장이다.

ㄴ. 맹자는 선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단을 확충하는 노력과 수양이 필요하다고 본다.

ㄷ. 맹자는 성에는 식색의 욕구도 있고 도덕성도 있는데, 그 도덕성이 인간의 특징이라고 본다.

4. [출제의도] 공(空) 사상 이해

검색어 A는 공(空)이다. 불교에서 공은 모든 존재는 인연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실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뜻으로 욕망이나 아집과 같은 자아나 사물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 무아(無我)를 철저히 인식해야 함을 의미한다.

① 공은 아무것도 없이 허무하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존재도 본성에는 고정적인 성질을 가지지 않는다는 뜻이다.

② 보살에 대한 설명이다.

④ 중도에 대한 설명이다.

⑤ 불교에서 모든 존재는 인연의 화합으로 이루어진 상대적이고 임시적인 것이어서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

5. [출제의도] 인간의 특성 파악

제시문의 간디는 소금 법을 폐지하기 위한 합법적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가자 영국의 부당한 법률을 거부하고 비폭력적인 방법으로 소금 법 폐지 행진을 전개하였다. 이러한 간디의 삶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올바른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의 특성이 잘 드러나 있다.

6. [출제의도] 왕양명의 사상 이해

제시문은 왕양명의 사상이 담겨 있는 “전습록”의 일부이다. 왕양명의 사상 체계에 의하면 마음이 없으면 이치도 없다. 즉 마음은 우주의 입법자이며, 이 입법에 의해 이치가 세워진다는 것이다. 또한 왕양명은 인식으로서의 지(知)와 실천으로서의 행(行)은 별개가 아니라 본래 하나라는 지행합일설(知行合一說)을 주장하였다.

ㄷ. 왕양명은 치지(致知)와 역행(力行) 또는 치지와 함양(涵養)을 선후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지 않았다.

ㄹ. 왕양명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타고난 참된 앎인 양지(良知)를 가지고 있다.

7. [출제의도] 에피쿠로스학파와 스토아학파의 특징 파악

같은 에피쿠로스학파의 창시자인 에피쿠로스, 을은 스토아학파의 사상가인 에픽테토스의 주장이다. 스토아학파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과 세계의 본성인 이성이 들어 있다고 보았으며 감각이나 욕망 대신 이성이 인간 정신을 지배한다고 보았다.

①, ② 에피쿠로스학파는 정신적 쾌락을 중시하여 감각적 쾌락의 절제를 강조하였으며 은둔자적인 삶의 방식을 권장하였다.

③ 에피쿠로스학파에만 해당한다.

④ 스토아학파는 자연의 섭리와 자신의 운명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8. [출제의도] 정의 윤리에 대한 길리건의 비판 내용 파악

같은 롤스, 을은 배려 윤리 사상가인 길리건이다. 길리건은 콜버그, 칸트, 롤스의 사상을 ‘정의 윤리’로 규정하고, 이러한 정의 윤리가 남성 중심의 덕목과 보편적 도덕 원리를 강조하여 개인의 고립, 서로에 대한 무관심, 보살핌의 부족 등의 문제를 초래하였다고 본다. 길리건에 의하면 정의 윤리는 배려 윤리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으며, 배려 윤리는 보살핌, 공감과 동정심, 유대감, 책임 등을 중시한다.

① 롤스는 정의의 원칙을 계약의 산물로 본다.

② 길리건에 따르면 배려 윤리와 정의 윤리는 상호 보완 관계에 놓여 있는 것이지만 어느 것이 다른 것에 우선하는 관계에 있지 않다.

③ 정의 윤리는 인간의 이성적 판단 능력을 신뢰한다.

⑤ 보편화 가능한 도덕 원리의 정립은 주로 정의 윤리를 중시하는 입장에서 관심을 갖는 주제이다.

9. [출제의도] 지눌의 사상 이해

제시문은 지눌의 주장이다. 지눌은 돈오점수를 주장했지만 근본적으로는 선종의 입장을 계승하였다. 지눌은 밖으로 향하는 마음의 빛을 안으로 돌이키면 스스로의 성품, 즉 본래의 성품이 부처의 성품과 다르

지 않음을 깨닫게 된다고 보았다.

①, ② 지눌은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과 선종의 통합을 추구하였으며, 돈오 이후의 수양에 있어 선정과 지혜를 함께 닦아야 한다(定慧雙修)고 보았다.

④ 지눌은 경전만으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보지 않았다. 참된 깨달음은 마음의 본래 모습을 볼 때 얻어지는 것이다.

⑤ 지눌은 단박에 깨닫는 것은 깨달음의 시작이며, 이후 지속적인 수양을 통해 부처의 삶을 구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10. [출제의도] 이황과 이이의 사상 비교 이해

같은 이이, 을은 이황의 주장이다. 이이는 이황의 이기호발설과 사단칠정론을 비판하면서, 발하는 것은 ‘기’이고 발하는 까닭이 ‘이’라고 보아 오직 ‘기’만 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이에 따르면, 사단과 칠정은 모두 ‘기’가 발하여 나타난 것으로 사단과 칠정이 분리될 수 없고, 사단은 칠정을 포함할 수 없지만 칠정은 사단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단은 칠정의 선한 측면이라고 보았다.

ㄱ. 이황은 이와 기가 모두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기호발설을 주장하였다.

ㄷ. 이이에 따르면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선한 본성인 이는 교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11. [출제의도] 장자가 추구한 바람직한 삶의 자세 파악

제시문은 도가 사상가 장자의 입장이다. 장자는 시비 선악 등과 같은 일체의 분별과 차별에서 벗어나 만물을 하나로 보고 자연의 흐름에 따라 살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즉, 세상의 잡다한 일은 물론이고 분별적 지혜를 끊고 도(道)와 일치되는 삶을 추구하였다.

①, ② 장자는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만 참다운 지혜를 갖출 수 없다고 보았으며, 자기중심적 관점에서 벗어나 사물의 자연스러운 변화를 따를 것을 강조하였다.

④ 장자는 타고난 본성을 자유롭게 발휘할 것을 주장하였다.

⑤ 유교에서 추구하는 삶의 모습이다.

12. [출제의도] 쇼펜하우어의 사상 이해

제시문은 생철학의 대표자인 쇼펜하우어의 견해이다. 그에 따르면 세계의 본질은 ‘살려는 맹목적 의지’이다. 이 의지는 욕망 그 자체인데, 욕망은 영원히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따라서 쇼펜하우어는 의지의 전적인 부정, 즉 철저한 금욕을 통해 고통으로부터의 해방(해탈)에 이를 것을 주장하였으며, 이성과 과학으로는 삶의 특성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없다고 보았다. 쇼펜하우어는 이성주의, 합리주의, 관념론에 대해 비판적인 자세를 취하였다.

13. [출제의도] 동학과 증산교의 입장 비교

(가)는 동학, (나)는 증산교의 입장이다. 동학은 최제우가 창시한 민족 종교로, 경천(敬天)사상을 기본으로 유교, 불교, 도교의 사상을 융합하여 성립하였으며, 모든 사람을 하늘처럼 섬길 것을 강조하였다. 증산교는 강일순이 주로 도가와 무속을 재해석하여 만든 종교로, 모두가 상생(相生)하는 이상 사회의 실현을 추구하였다. 동학과 증산교 모두 격변의 시대에 전통적인 사상들을 새롭게 해석하여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길을 제시하려 했으며, 신분 차별이 없는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였다.

14. [출제의도] 고전적 자본주의와 수정 자본주의의 특징 파악

(가)는 고전적 자본주의 사상가인 스미스, (나)는 수정 자본주의 사상가인 케인스의 입장이다.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유방임 자본주의를 주장한 데 비해 케인스는 정부의 시장 개입으로 시장 실패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보았다.

① 스미스와 케인스는 모두 분배의 평등을 추구하지 않았다.

③ 케인스는 불황에서 벗어나기 위해 정부의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유효 수요를 확대할 것을 주장하였다. 반면 스미스는 국가의 개입에 반대하고 자유 시장의 질서에 맡겨 둘 것을 주장하였다.

④ 스미스와 케인스는 모두 자본주의 사상가로 사적 소유권을 인정하고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추구하였다.

⑤ 생산 수단의 공유를 통해 평등 사회를 실현할 것을 주장한 것은 마르크스의 사회주의이다.

15. [출제의도] 아우구스티누스와 아퀴나스의 사상 이해

같은 아우구스티누스이고, 음은 아퀴나스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플라톤의 이데아론을 활용하여 그리스도교 교리를 체계화하였다. 아퀴나스는 신앙과 이성이 서로 보완적 관계에 있다고 보았으며, 신의 존재를 논리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퀴나스의 사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을 받아들여 전개되었다. 두 사상가는 모두 인간이 신의 은총을 통해서만 구원될 수 있다고 보았으며, 종교적 진리를 인식함에 있어서 신의 계시를 중시한 그리스도교 사상가들이다.

③ 아우구스티누스에 따르면, 신은 이성적 인식의 대상이 아니라 실존적으로 만나야 할 인격적 존재이다. 반면 아퀴나스는 신의 존재를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

16. [출제의도] 공동체주의의 관점 파악

밑줄 친 '나'는 공동체주의의 입장이다. 공동체주의에서는 공동체의 선이 개인의 선보다 우선하며, 개인은 동료와의 유대감 속에서 공동선을 추구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개인의 정체성과 좋은 삶은 공동체의 역사와 전통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ㄱ. 공동체주의에서는 인간을 다른 구성원들과 떨어져 존재하는 '원자적 자아'로 보지 않고 구성원들과 유대가 깊은 '관계적 자아'로 본다.

ㄴ. 공동체주의에 따르면, 공동체는 개인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

17. [출제의도] 가치 일원주의 이해

하나의 가치만을 인정하여 모든 가치를 그것에 비추어 옳고 그름, 좋고 나쁨을 따지는 것을 '가치 일원주의'라고 한다. 그리스 신화에서 유래한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라는 말은 자신의 기준에 맞추어 다른 사람을 평가함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가치 일원주의의 속성을 잘 보여준다.

① 관용의 의미이다.

③ 선입견은 어떤 대상에 대해 미리 접한 정보나 처음으로 얻은 지식이 강력하게 작용하여 그 대상에 대해 지니게 된 고정된 평가나 견해이다.

18. [출제의도]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파악

제시문은 사회주의가 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평등 사회의 실현을 목표로 하였으나 자유의 억압, 노동 동기의 약화, 생산성 저하로 인한 경제 침체로 인해 이상을 실현하지 못했음을 보여 준다.

19. [출제의도] 요나스의 책임 윤리의 기본 관점 파악

제시문은 책임 윤리를 제창한 요나스의 주장이다. 요나스는 현대에 요청되는 윤리는 미래 세대와 모든 생명에 대한 책임을 포함하는 윤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은 인간의 본질적인 특성이므로, 인간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은 당위이며, 자연은 인간의 생존을 위한 조건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인간의 보호를 필요로 한다고 본다.

ㄱ. 요나스는 지식을 무기로 하여 자연을 이용하려는 베이컨적 프로그램(인간 중심주의적 관점)을 비판하였다.

20. [출제의도] 민본주의와 민주주의 사상 이해

(가)의 A는 민본주의, B는 민주주의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근본으로 여기는 정치가 바른 정치임을 강조하는 정치 이념으로 통치자의 도덕성을 강조하여 인격을 갖춘 통치자가 출현수범하여 덕으로써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민본주의는 백성을 정치적 주체가 아닌 통치의 대상으로 본다는 점에서 일정한 한계를 갖지만, 인간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백성을 위한 정치를 구현하는 것을 이상으로 삼는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와 공통점을 지닌다.

⑤ 통치자를 선출하는 과정과 절차를 중시하는 것은 민주주의이다.